

제25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중국대회

“인류·지구 이롭게”…한중일 불교도 ‘평화’ 염원

중국 베이징=김내영 기자

세계 평화와 인류의 안녕을 기원하는 한중일 불교도들의 기도와 발원이 중국 광제사에 울려 퍼졌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는 베이징에서 중국대회를 열고 삼국 불교도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의 자비가 온 세상에 퍼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인류공동체의 조화로운 세상이 실현되길 한 마음으로 염원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중국불교협회(회장 연각 스님),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회(회장 이토 유이신 스님)는 10월 19일 중국 베이징 광제사에서 ‘제25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의 첫 순서로 ‘세계평화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올해 교류회의는 ‘초심을 잊지 말고 미래를 함께 열어 나아가자’를 주제로, 한중일 불교도 300여 명이 모여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세계 평화 의지를 다졌다.

한국 대표단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 정사, 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관음종 부원장 도각 스님 등 종단협 소속 24개 종단의 스님 109명으로 꾸려졌다. 중국불교에서는 중국불교협회장 연각 스님을 단장으로 150여 명이, 일본불교에서는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타케카쿠쵸 스님을 단장으로 31명이 동참했다.

삼국 불교계는 광제사 대웅전에서 각국 전통의식으로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리며 끊임없는 연대와 실천으로 공생과 화합을 이뤄가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한국 대표단은 오분향례와 칠정례, 석가모니불 정근, 반야심경 봉독 순서로 법회를 진행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번 교류대회의 인연공덕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인류 화합, 세계평화가 원만히 성취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법회에 이어 삼국 대표단은 우의빈관 2층 취영청으로 자리를 옮겨 개막식을 개최했다.

중국불교협회장 연각 스님은 먼저 중국을 찾은 한일 불교계 스님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전하고,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30주년을 맞아 오늘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이끈 고 조박초 회장 등 선현들에게 깊은 추모의 뜻을 표했다. 이어 “지난 30년간 삼국 불교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는 우호적 교류와 협력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성장했다”며 “상호 이해와 우정 속에서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수호하고 인류 공동의 번영에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10월 19일, 평화기원법회로 본대회
한중일 불교 30년 황금유대 확인

우의빈관서 개막식 · 학술 강연도
진우 스님 ‘선명상’ 교류 확대 제안
삼국 대표 선물 전달로 내년 기약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30주년을 계기로 만남과 대화를 넘어 불교의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한 공동 실천과 협력의 단계로 나아갈 것을 천명했다.

진우 스님은 “우리 앞에는 기후위기와 경제적 불평등, 세대 간 갈등, 국제 분쟁 등 인류 공동의 과제가 놓여 있다”며 “이는 어느 한 국가나 단체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그 해답은 불교의 수행과 사유 속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국 불교계가 힘을 모아 인간과 자연, 모든 생명이 서로 연결돼 있음을 세상에 알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선명상’을 매개로 한 교류 확대를 제안했다. 스님은 “선명상은 나와 타인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생명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하는 수행법”이라며 “사회적 치유와 갈등 해소, 더 나아가 지구적 차원의 상생을 이끄는 실천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중한국제불교교류협의회장 이토 유이신 스님을 대신해 정토종 기획조정실장 나고시 호하쿠 스님은 “삼국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하고 불법의 흥성과 인심의 안정, 세계의 항구적 평화를 기원하면서 이번 회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원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새로운 한중일 3국 불교의 친선교류’를 주제로 학술강연회도 열렸다. 강연회에서는 불교 교류의 근본정신을 되새기고, AI 발전과 문명 전환기에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발표들이 이어졌다. 기조연설에 나선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인공지능 시대에 삼국 불교 교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물질과 과학만능의 시대를 넘어 정신문명을 강화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상생의 길을 함께 열어가자는 것이다. 능원 정사는 “인공지능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고 새로운 경험을 가능하게 하지만, 지혜롭고 건강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중일 불교계는 만찬과 선물 전달을 끝으로 제25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중국대회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한국대회에서의 재회를 기약했다. 만찬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자비와 연대의 등불이 인류의 평화와 행복으로 멀리 뻗어나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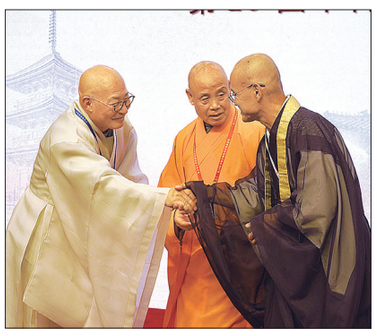
본대회에 앞서 한국 대표단은 10월 17일 청대 황실사찰인 옹화궁을 참배하고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이자 북경시불교협회장인 호설봉 스님과 차담 시간을 가졌다.



한국 대표단은 옹화궁을 참배하고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이자 북경시불교협회장인 호설봉 스님과 차담 시간을 가졌다.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한국 대표단이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 삼국 대표 스님들이 악수를 하고 있다.



‘새로운 한중일 3국 불교의 친선교류’를 주제로 열린 학술강연회 모습.

“무연대자 동체대비로 인류 평안에 기여”

한중일 불교도 공동선언문 채택
차기 교류회의는 한국에서 열려

한중일 불교도들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세계 평화와 중생 구제를 위해 불교의 가르침을 사회에 적극 펼치겠다고 서원했다. 공동선언문에는 △법의 근본을 굳건히 다질 것 △대중의 내면 건강에 주목할 것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할 것 △인류운명공동체를 함께 구축할 것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삼국 불교도는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정자 스님이 대표 낭독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삼국 간 민간 교류와 국민 간 우호 증진을 통해 다양한 문명이 조화롭게 공존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어떠한 폭력과 충돌도 반대하고, 자비와 지혜로 갈등을 해결해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에 기여하자”고 다짐했다.

이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진호 스님(원융총 총무원장)과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명생 스님, 한중일불교교류협회 이사장 다케가쿠쇼 스님은 이번 대회 공동선언문과 차기 대회 개최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제26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는 한국에서 열린다.

김내영 기자



진호 스님(원융총 총무원장)과 명생 스님(중국), 다케가쿠쇼 스님(일본)이 합의서에 서명했다.

